

펼쳐지는 두루마리 - 일곱 인들

The Unrolling of The Scroll

계시록 4:8절에서 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짐승들을 요한이 보았다. 그 다음 장들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검토할 일곱인들이 잇따라 열린다. 그들이 제각기 말하기를, "와서 보라." 고 한다. 그 분께서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일곱 장벽들이, 연속적으로 열려서 모든 사건들을 증거한다. 이는 이 우주 안에서 죄와 고통이 완전히 전멸되기 전에, 전개되는 마지막 사건들이므로, 우리의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표징들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을 위하여 경고와 위안의 등대가 되어 봉사한다.

이 소론이 실제로 한쌍 중에 하나이다. 이 기록이 다른 기사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를 거울과 같이 반사한다. 그 연구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 시대들"을 토의하였고, 야쉬와와 신부가 형성된 A.D 1세기부터 아주 마지막 때까지 드러내었다, 그 다음에 영광에 넘치는 그 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계시록을 읽을 때, (특히 예정된 시각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저자의 필수적인 요소들의 스타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시자 요한이, 그의 모든 기록들에서, 그가 의도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순서대로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이전 기록에서, 내가 지옥의 본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또 요한이 나타낸 모든 기록들 중에서 적어도 한 실례를 내가 제시하였다. 요한이 어떤 것을 말할 것이고, 그것을 또 다시 말할 것이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여서, 그 다음에 그대에게 그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들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역시 대단한 사건들이다. 이 기록에서 일곱 숫자의 중요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일곱 인들과 일곱 시대들이 역시 같은 때에 발생한 사건들임을 증거할 것이다. 이는 각 교회 시대들 사이에 각 인들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는 대로, 환란 이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요한 계시록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한 것)과 같은 직선적인 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구절들에서 같은 사건들을 다른 방식들로 두 번 또는 세 번까지도 설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때를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1:3) 이 구절이 말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자, 그러면: 그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되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긴밀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이 기록과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를 어떤 순서 없이 읽을 수 있다. 내가 그것들을 될 수 있는 한 병행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소론이 이전 기록에 참조문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것을 계속하기 전에, 최소 한도로 그 주제를 대략 읽으라고 권장해 볼만하다, 그렇지만 나의 기도는 각자가 참으로 이 기별 자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후에 첫째 인과 첫째 교회 시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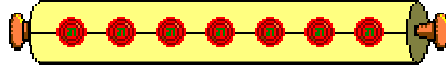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먼저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서 밀봉한 종이 위에 반지나 도장을 눌러 찍어서 제시하였다. 아주 중요한 문서는 더욱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인장들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곱 인장들을 사용한 문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사실상, 유언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일곱 인장들을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였다. **Yes**,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언이 담긴 문서와 증거를 이런 식으로 인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몇 가지의 개념들을 상기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사건들이 그 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계시록 5:1) 하나님의 뜻이 책 안팎에 기록되었다, - 바꿔 말하면, 아주 많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기록하기에 족한 여백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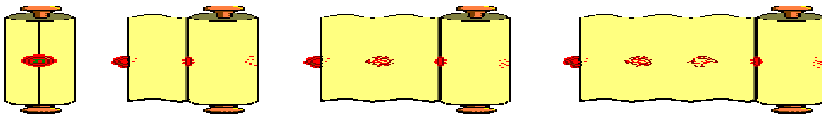
두 번째로, 이것이 그저 그 분의 뜻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유언장"이다, 이는 남자나 여자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에게 남겨놓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야쉬와께서 죽음의 속전을 치루고 구원하셨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가 그 분께서 죽으실 때, 뒤에 남겨 놓으신 바로 그 실제물이다. 그 두루마리가 아버지의 손에서 일곱 인들로 인친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생명으로 얻으신 유업이고, 그 분께서 죽으심으로 보장하신 것이다 - 이것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증명서임과 동시에 타이틀이고, 또 사실상 그것이 일곱 인들로 잠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유언"으로 남겨 놓고 떠나신 것이다; 이는 인들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될 그 분교회의 역사이다.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다. 일곱 인들의 표징이 담긴 두루마리가 이런 식으로 잠가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그것이 유언이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든지 간에, 다수의 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 문서에 배열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인들이 이 방식으로 배열되었고, 하나가 열려질 때마다, 그 두루마리 종이가 조금 더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인들이 실제로 하나씩 차례대로 열릴 때마다 그 두루마리가 "풀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들의 아름다운 실상에 관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시대마다, 그 두루마리가 조금 더 펼쳐져서, **야께서 계획**하신 다른 단면이 우주 앞에 드러난 동시에, 이 지상에서 영을 소유한 자가 그 정해진 시기들과 표적들을 해석하였다. 각 시대마다, 이것을 이해한 남녀들이 펼쳐지는 두루마리에 의하여 발산된 새로운 빛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인이 열려져서 반사하고, 또 이 지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소론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야쉬와의 아름다운 신부, 첫째 인과 첫째 시대를 시작한다.

첫째 인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계시록 6:1,2)

근래에 어떤 자가 나에게, 계시록의 일곱 인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기를, 첫째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가 역시 그것에 대하여 편견없는 사례를 들어서, 활과 면류관의 표상을 대단한 방식으로 도리에 맞게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의혹이 일어났다: 그러면 말을 탄 자가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말 탄 자의 본질을 식별할 수 있으면, 열려진 이 첫째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첫째 말을 탄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흰 말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 말 탄 자를 제 2차적인 존재로 언급하고 그 말을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 계시록에서 흰 말을 언급한 유일한 다른 구절이 여기에 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계시록 19:11) 아직도 말 탄 자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장을 계속해서 읽으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흰 말위에 앉으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흰 색이 순수함을 표상한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흰 옷들을 입었다 (계시록 3:4, 4:4, 7:9) 그리고 다른 몇 구절들에서,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빛의 천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적절하게 해석하게 하고, 인들이 열려지는 예언적인 패턴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였다: 준마를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정복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보라." 고 언명하였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2장 첫째 교회 시대에서, 이것과 유사한 점을 찾아 본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계시록 2:1-7)

교회 역사에 첫째 시대를 에베소라고 부른다, 이는 그리스어로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서 교회 시대를 다루는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도,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대가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 시대 교회가 교리와 개인들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말들과 가르침들의 출처가 참으로 하늘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였다.

지상에서 야쉬와의 사명을 위하여 개인적인 증거와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자들이 생존했던, 대단한 사도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면류관이였다. 게다가, 그들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별의 빛을 발하였으므로, 각 개인들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순수한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11) 이 초기 교회가 이 활과 이 면류관을 지니고 말을 타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함을 명시하였다.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참으로 우리 구주의 큰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 20)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 그대로 계속되었으면, 지금쯤은, 이 지구가 이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에베소 시대이기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그 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적하셔야 했던 것은 - 그들이 그들의 첫 사랑을 떠난 것이다. 몇 년 후에,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도,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20:29,30) 바로 그 구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한다, "그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행전 20:17) 바울이 경고한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였다!

다른 기록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 2:6절에서 언급한 니콜라당의 교리가, 최초에 오류들과 함께 섞여서 나중에, 슬며시 기어들어 와서 - 첫째 교회 시대의 참된 면류관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본래 기별을 왜곡하였다. 그 교회가 참으로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시록 2:4) 그 후에, 나온 복음 성경의 모든 번역문들의 강도가 희박하여졌거나 부패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직 참된 왕이신 야쉬와께서, 그 분의 아름다운 속죄 사업의 실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 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이 기록 끝이 가까울 때 더 많이 검토할 것이다. 이 소론의 목적은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에서 기록된 정보를 반복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과 4장을 통하여 일곱 인들이 열려지고 반사함이 "시대의 소망 - 일곱 교회" 주제와 똑 같은 연속성으로 흐르는 것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유로, 내가 바울의 경고와 야쉬와의 교훈을 토의한 것이다. 참으로 첫째 교회 시대 안으로 오류들이 살며시 기어들어가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별을 손상시켰다. 지금, 면류관을 지니고 흰 말을 탄 자의 표상이 (현존하는 사도들이 왕권의 표상을 반사한 것)이고 또 활은 (승리한 군인을 표상)함이 아주 이치에 맞는다, 그러므로 다음 인이 계속 열려짐에 따라서 그 표상이 잘 반사되었다.

둘째 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계시록 6:3,4)

첫째 말을 탄 자가 가졌던 승리의 표징인 활보다도 오히려, 이 둘째 승마자가 아주 순수하지 못한 말 위에 앉아서, 칼을 휘두른다. 이것이 언제나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쟁하고,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우고,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전쟁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교회 시대에게, 다른 것들과 함께 이것을 말씀하셨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10)

어떤 다른 교회 시대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확실한 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둘째 시대, 서머나 교회에게 (이 교회 이름의 뜻은 몰약의 향기이므로, 이것이 분쇄되어 정연하게 달콤한 향기를 산출한 것) 기록된 것이며, 이것이 참으로 로마 다신교 아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한 개론이다.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세기들을 통하여 사탄이 참으로 "여자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불과 칼들이, 참으로 야쉬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함을 시험하였다. 서머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결짓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다. (계시록 2:11) 그렇지만, 허다한 경우에, 첫째 죽음이 불운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둘째 인이 지상에서 평화를 탈취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하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죽였다.

역사가 "십일 동안"에 있었던 박해에 관하여 말하기를, 교회를 대적하여 박해의 손을 높이 든 로마의 모든 황제들 중에서, 디오클레텐이라고 이름하는 군주가 가장 잔인하였다. 그가 AD 303년에서 313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적대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주께서 요한에게 말한 환난의 때가 성취된 것이며, 기록된 대로 예언의 때가 성취된 것이다, "...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에스겔 4:6)

셋째 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5,6)

검은 말 한 마리가 - 암흑을 뜻한다. 영적인 "암흑"이 전쟁에 의한 붉은 투쟁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이다. 이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는 심판을 말한다; 더욱이, 거기에서 언급한 식품 값이 극심하게 높다고 생각한 요한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알려 준 것이다. 또한 이것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레위기 26:26절을 보면, 밀의 분량을 염려하고 저울질한다. 셋째 인이 열려진 동안에 상태는 기근이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때는 기근이 육신을 위한 식품 때문만이 아닌 것을 자주 나타내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2)

물론, 우리가 유의할 것은, 기근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부자들의 식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바꿔 말하면, 야의 말씀의 기근이 온 것은 교회가 세상 권세와 연합한 결과이고, 이 경우에, (검은 말로 표상)된 것은, 정치적인 무력을 교회 위에 강요하므로, 그들 자신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견해에 대하여 역사에서 반영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버가모 도시가 아시아 마이너의 높은 언덕 위에 건축되었다. 이 교회에게 요한이 세 번째 인사말을 하였다. 이 도시의 뜻은 "결혼 (결합)"이므로, 셋째 인이 열려진 후에,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로마가 이때까지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기소하는 입장으로부터 완전히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불을 내뿜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뱀이 이브를 속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와 결합을 피한 것이 (이는 물론 신부를 이 세상 "높은 곳")에 올려 놓고, 교회가 동정녀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한 것이다.

인이 열려진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파악한 것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음의 견해가 제거된 후에, 안식일 교리를 신속하게 잃어버렸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로마의 다신교 축제들과 관례들이 교회 안에 퍼부어지기 시작하였다. 천사들과 성도들을 숭배하는 다신론의 얇은 베일 아래에서, 성직자들이 일요일을 지키고 타락하였다... 이러한 것들의 본질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그 자신의 국가 종교로 만든 바로 그 결과가 된다. 로마가 명목상 개심한 기독교도가 되었다. 기독교가 검은 말 위에 앉은 검은 자에 의하여 영적으로 정복당하였다.

그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로부터 평정을 주겠다는 정치적인 권력의 약속에 유혹되어, 급히 세상 권력 앞에 그들의 신실함을 굴복하였다. 그러나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영적인 암흑과 교리의 기근이 온 것이다 -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비틀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 이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데켈; 그대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다니엘 5:27)

아직도, 이 거대한 로마- 교회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러한 무시무시한 오류들이 포함된 그 종교들의 딸이 된

자들에게, 야쉬와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16)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버가모에게 준 기별이고, 또 그 시대가 받아들인 끔찍한 거짓 교리들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기별이다.

넷째 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7,8)

순수한 복음의 기별이 점차적으로 부패하기 전에: 흰 말에서, 붉은 말로, 검은 말로... 전개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창백한 말을 가지고 있다. 주석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이 사용한 그 단어가 죽은 사람의 시체와 같이 창백한 색깔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한 것은, 그 말을 탄 자가,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죽음의 화신이다. 지옥 (이 단어는 여기에서 황천,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무덤")이고, 역시 이것이 그저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의 생명의 종말이 따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또한 제시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비록 하늘에서 인들이 열려졌을지라도, 지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연구할 다섯째 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우리가 "지구의 넷째 부분" 시대에서 죽음이 지배한 것을 볼 수 있다. 칼들과 굶주림과 들 짐승들의 권세가 사신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권세가 당대의 전문어로 알려져 온 것이다. 이 넷째 교회 시대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세와 박해가 절정에 달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로마 다신교의 영향력을 저항한 자들과 새로이 형성된 로마 개톨릭 교회 조직을 항거하는 자들이 굶주림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집에서 도망한 후) 정치적인 권세와 문자 그대로 "들 짐승들"과 칼에 의하여 죽음과 고통을 당하였다.

넷째 교회의 이름이 "두아티라", 이 의미는 "계속적인 희생"이다, 문자 그대로 무수한 참된 기독교인들이, 셋째 시대를 통하여 (국가와 교회)의 부정한 결합으로 제정된 교회에 가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증거의 피를 지상에 쏟았다, 그 동시에 넷째 시대가 계속되었다. 타락과 배교한 교회일지라도 (이 예언자의 기록을 더욱 엄밀하게 검토한 결과) 얼마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은, A.D 538년경부터 바로 개혁 시대까지, 죽음의 영이 공언하는 야쉬와의 종들을 더럽혔을지라도, 그 분의 참된 추종자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종교 재판과 같은 그러한 혐오스러운 사건들과 저주를 견디어낸 것이다.

비록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계시록 2:24,25)

다섯째 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계시록 6:9- 11)

다섯째 인이 열려질 때, 우리가 지나간 마지막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장벽을 통과하였을 때, 말 탄 자를 지상에 보내지 않았다. 우리 주의 교리를 황폐케 하고 부패케 하는 거친 말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 시대 이전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어떤 해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섯째 인이 열려질 때, 독자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미 제단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요한이 본 그들을 설명한 것이고, 그들이 이 다섯째 시대를 통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은, 그 영혼들에게 흰 옷들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참된 빛을 보았으므로 실제로 위안을 받았고, 평정이 주어졌다. 이전 인을 내가 토의하는 동안에, 내가 나의 독자에게 이것을 주목하라고 하였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각 시대들에서 돌연히 펼쳐진 것이지,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근래에 기록한 것들 중에서 죽은 상태와 지옥의 본질에 관하여 취급하였다, 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죽음이 침묵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친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도서 9:5) 그들이 생각한 것들과, 생각한 때와 기억한 것들이 중단된다 (시편 146:4), 심판을 위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12:2, 데살로니가전서 4:16) 그리스도 야쉬와키의 말씀들이 실제로 반영되는 그 때, 그들이 보상을 받게 되거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일찍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2:24-27, 계시록 20:13, 베드로전서 5:4, 디모데후서 4:8)

어떤 자들의 기사들 중에 하나는, 이 가르침과 대립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것을 보았다, 저들이 성경을 (소홀하게 검토)한 듯하므로, 아무튼,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 이 연구에 더욱 적합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미 말한 것이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나, 오직 가장 기초적인 것을 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에 있었던 인들과 연결되는 모든 사건들을 철저히 읽으면, 계시록 6:9절이 언급한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구절들에 따르면, 사람이 죽음에 접하면 몸이 죽고, 그의 마음과 생각들과 기억한 것들이 함께 사라진다. 야께서 산 피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불어넣어 주신 그 영, "생명의 호흡"이 하늘에 계신 그 분께 되돌아간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계시록 6장에 있는 구절들의 문맥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만족하며 지적하기를,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고, 죽은 "영들"이 아니다. 고 한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지금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일지라도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들이 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라도, 기독교인 독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언급된 그 불행한 영혼들이 하늘의 평화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을 순교시킨 자들을 적대하여 심판하고, 원한을 갚아 달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과 절대로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야쉬와키에서 재림하실 때, 한층 더 큰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복된 소망"은 죽음이 아닌 **부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떤 독자들이, 계시록 8:5절과 14:18절에 있는 구절들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아무리 보아도 하늘에 거주한다고 항거할지 모른다. **Yes**, 하늘에 제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인 계시록 8:5절에서 보여준 것이, 희생 제단이 아니고, 향료가 있는 금제단이다. 지상 성소를 설명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늘에 있는 금제단을 말하였다. (출애굽기 25:8,9) 그러므로, 우리가 두 제단을 발견하였다, 한 제단은 희생 제단이고 (출애굽기 27:1,3) 솟으로 입힌 것이다, 이는 심판을 (출애굽기 27:2) 상징한 것이다. 다른 제단은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었고, (출애굽기 30:1) 그 제단을 금으로 입힌 것은 순결의 중요성을 (출애굽기 30:3) 나타낸 것이다.

또 다시, 계시록 8:3절에서 "제단"을 설명한 "금제단이 보좌 앞에" 있고 그 위에 "많은 향"이 바쳐진 것을 우리가 본다. 이것에 대하여, 마지막 일곱째인을 연구할 때, 더 많이 토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나라에 희생 제단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넷째 인이 선행하는 동안에 큰 박해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 것은 어떤 사건인가? 그것을 쉽게 응답할 수 있다. - 그것은 다섯째 인이 열려질 때, 개혁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교회 시대를 "사데"라고 부른다 (이는 "남아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였다, "...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계시록 3:1,2) 참으로, 그 당시 교회가 그저 이전 유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오. 지금, 교회가 세상 눈 앞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막강하게 되었다 - 왕들과 군주들이 캐톨릭 교회 통치자들의 심판 앞에서 복종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시야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시대가 "요한 계시록의 말 탄 자" 아래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야의 칭찬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재산과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직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병들고 압박 당하는 자들에게 - 짧게 말하면, 봉사해 주어야 될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가 자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박해의 상징이 되었다. 신부가 소유한 이름이 생명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 그 자체가 죽었으므로, 다른 자들까지 죽게 된 것이다, 로마 다신교 의식들 안에서 얇게 덮은 냉담한 형식 존중 주의와 압제하는 영으로 인하여 신부가 이전처럼 파멸된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피에 굶주린 황제가 소유한 통치권의 정력이 결코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세기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행하는 자들을 적대하여 말한 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으나, 개혁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을 때,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단과 신성 모독과 어떤 경우에는 마술쟁이라는 것발

아래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고, 그들의 영적인 성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희생하였으므로, 개혁을 이해한 자들의 눈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보장한 대로, 이 용감한 남녀들을 위하여 하늘이 간직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죽음으로 보전한 그들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개혁 시대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 있는 것들을 강하게 (영문)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첫째 인과 둘째 인이 끝날 때,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대단한 개념과 안식일 교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오직 성경상으로 타당한 물에 잠그는 침례 방식,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었고 개혁사업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이것이 여섯째 시대 교회가 계속 향상할 수 있도록 포장 도로를 놓은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계시록 6:12-14)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단지, 이 여섯째 인을 위한 사전준비였다.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단지 머리말에 불과한 것임을, 참으로 계시록 자체가 나타낸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 몇 구절들에서 각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선행하는 단계와 사건들을 기록하였고, 7장 전체가 여섯째 인을 위하여 몰두하였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열려지는 사이에, 아주 많이 일어난 사건들과 지금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포함된다.

내가 다섯째 인 마지막에 "향상"함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아무튼, 이 "향상"함이 오직 참된 교회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으나, 사탄이 진화론과 같은 것으로 기만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의 사람들이므로 향상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다. **Yes**, 정직하게 야의 얼굴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자들에게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빛이 점점 더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영혼들의 적들과 악령들의 사업이 한층 더 격렬해졌다, 그러므로 야쉬와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열렬한 중보를 계속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24)

여섯째 인이 열리는 것과 관련지어진 표적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면, 그것들이 아주 극적인 광경 같다. 사실상, 그것들과 관계가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그러한 것들이 "정조들과 계절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이다, (창세기 1:14) 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여섯째 인 시대와 일곱째 인 변경 사이에 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을 것을 예기한다.

이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기록, 레이철에게 보내는 편지들 #7에서 이 표적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세상과 종교적인 출판물들에서 해가 검어진 것과 달이 붉게된 것과 별들이 떨어진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날자들과 참조문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을 제공하였다. 그 후 그것 외에, 내가 부수적인 참고문들을 몇 개 더 발견하였으므로, 여기에 그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수반하여 펼쳐진 첫번째 표적들이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계시록 6:12a) "리스본 지진이 1755년 11월 1일에 발생하였다, 이것이 보통 지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실제로, 모든 세상과 모든 대륙들을 진동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지진이었다."고 벨슨스 뉴루즈-리프 백과 사전에서 언급하였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도 피해입은 것들을 어렵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상 표면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동요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친 지역들에 대한 목록을 빠뜨리고 제공한 것이다. 그것들 중에는 스코트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소아시아 등등이다. 1872년에 발행된 - 그레고리 원칙들 (11번째 판)에 따르면, 단지 6분간 코스에서 죽은 자들이 약 60,000명에 달하고, 또 다른 출처들에서 주장하기를, 그 여파로 말미암아 다른 30,000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고 하였다.

지진 후에 이것을 예상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성경 구절이 있다: "...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계시록 6:12b) 지금, 지진들이 항상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리스본 지진이 역사상 가장 큰 기록이었고, 이것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다 - 그렇지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된 것)은 무엇인가 다르다, 이는 "자연계"를 초월한 것이다.

그 지진이 있고 난 25년 후, 1780년에, 참으로 두 번째로 정해진 표적이 나타났다. 레이철에게 보내는 편지 #7에서, 이 사건을 설명한 자료들을 몇 개 제공하였다, 지금도 각종 출판물들이 "암흑의 날"을 언급한다. 어떤 정보원이 주장하기를,

5월 19일 오전 9시에 해가 어둡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다른 자들이 말하기를, 오전 11시까지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음침한 날들이 선행될 때, (산불의 검은 연기와 짙은 안개로 앞을 볼 수 없는) 원인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라도, 거의 오전 시간부터 자정이 지날 때까지 지속된 어두움의 명백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보스톤 출판물 독립 연대기 간행물 판, 5월 25일 서신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마, 이 어두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신분인 집을 떠날 때 있었던 어두움보다도 결코 더 어둡지 않았을 것이다." 고 하였다. 이는 아홉째 재앙에 따른 출애굽기를 참고하여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 재앙이 연속된 마지막 열 재앙에서 두 번째가 된다, 이는 바로 여섯째 인이 연속되는 마지막 일곱째 인에서 두 번째가 되는 것과 같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뻗어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0:21)

위에서 말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난, 그 날을 설명한 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을 설립한 상당히 존경받는 대학 교수들이다. 레이철에게 보내는 편지 #7 주제에서 그들의 기록들을 몇 개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몇 개를 더 제공한다. "만일 우주에 빛을 발하는 모든 몸이 생존함에 실패하고 수의에 싸여서 광선이 통할 수 없는 어두움에 싸였으면, 그 어두움이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 흰 종이 한 장을 붙들고 몇 인치 거리 안에서 주시하면 검은 우단과 똑같이 보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Samuel Tenney, Letter in Collections of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792 판.)

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양초들로 집 안을 밝혔다, - 새들이 저녁 노래를 부르고 사라진 후, 고요하였다; 암담들이 물러가서 화에 앉았다 - 사망에서 수탉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었다; -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물체를 분간할 수 없었고, 밤으로 출현한 어둑어둑한 모든 것들이 따분하기만 하였다." (Samuel Williams of Harvard University, as appears in Memoir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783) 그 대단한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을 받은 관찰자, 예일대학 총장, 티모띠 드와이트가 기록하기를,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아주 우세하였다. 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의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후회하였다." (Connecticut Historical Collections, 2nd ed., 1836)

"달이 붉은 빛으로 나타난 것을 경이하고 엄청난 것에 결부시켜서 보도되었다." (Bible Readings for the Home, p. 276 -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레이철에게 보내는 편지 7#에 실린, 다른 자료에서도 역시 언급하기를, 자정 후에 재현한 달이 짙고 붉은 색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여섯째 인이 열려지고 관련된 표적들이 계속 나타났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13)

1833년 11월에 하늘에 마지막 큰 표적이 나타났다. 그 달 13일 밤에, 북 아메리카 전역에서 엄청나게 큰 별뿔별 소나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이전에 레이철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를 통하여 논의한 것이, 그 해 11월 26일 판 포트랜드 이브닝 어드버타이저에서 인용한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다른 자료들을 제시하는 대신에 그 인용문을 제공한다. "우리가 예언자 [요한]이 말한 것을 언제나 비유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어제 이전에는 아무도 그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마음에 품은 자가 없었다. 별들이 떨어짐이, 마치 몇몇의 나무가 흔들려서 열매가 후두두 떨어지는 것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서...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날아간 것이다, 그것들이 설익은 과일들처럼 떨어져서 내던져진 것이다, 설익은 과일이 처음에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떨어져서, 직진하여 내려가는데, 다수가 낙하하므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의 자취를 횡단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던져지는 원동력이 더 크기도 하고 보다 적기도 하였다." (New York Journal of Commerce, Vol. 8, No. 534, Saturday, Nov. 16, 1833)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해, 1833년에 윌리엄 밀러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의 사업이, 후에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이 재림교 이름 아래에서, 개혁 사업이 마지막 '인'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마지막 표적이 나타난 것에 의하여 여섯째 인이 "완전히" 열렸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사건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여섯째 인이 여섯째 시대를 안내한 것에 대하여, 계시록에 이러한 성명서가 기록되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3:8) 또한 이 시대에 하늘 성소 교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어떤 다른 기독교인들의 형식이 아니고, 오직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이 성소 교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지상 성소가 참된 하늘 성소를 복사하여 묘사한 것이 여기에 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시록 15:5) 이것이 분명하게 된 것은,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의 원칙을 설명한 것과 똑같은 양식에 따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대속죄를 행하고 계심을 이해하였다.

이것이 다니엘 저서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기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표적이 나타낸 것은, 결코 야께서는 참으로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에게 지시하심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마지막 심판이 (여섯째 인이 열려진) 바로 그 무렵에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섯째 인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계시록 7:1-3)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섯째 인에서 멸망시키는 바람들이 막 불려고 한다 - 참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종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준비할 때까지 천사들이 힘껏 바람들을 억제하고 있다.

12 지파들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인치신 백성들이고, 또 이 12 지파들이 144,000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다, 바로 이 문제들을 "계시록 14:6-11절에서 취급하였고, 바로 지금, 이 "세 천사들의 기별"이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였다. 이 승리하는 기별 중에 한 관점은, 기독교인 법령에 유효한 넷째 계명에 속하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야의 계명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째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임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것을 그들이 "남은 것"들 중에 하나로 용기있게 붙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 교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개혁자들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사업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들의 사업들이 부족함이 발견된 것은, 다만 아직도 드러나야 할 것들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이트에 아주 많은 대목들에서 안식일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 문제의 완전함을 위하여 한층 더한 증거를 추가한다. 그리스 역사가이며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기록하기를,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매 주 안식일에, 애매 모호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한다, 아직까지, 로마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이,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관례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 **Ecclesiastical History, Book 5, chapter 22, in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2d series, Vol. 2, p. 32.**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A.D. 5세기를 통하여 기록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 긴 세월 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아무튼 (어떤 예기치 못한 이유로) 예배드리는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여섯째 인을 통하여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회복되었으므로, 이어서 이 완전한 복음이 지상에 능력있게 다시 한번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빛이 원하는 자들의 길 위에 계속 발산할 것이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기묘한 신들"과 국가 조직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기별에 의하여 야의 자녀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공포된 짐승의 표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인침이 지상의 역사가 끝나는 바로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일곱째 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계시록 8:1)

속죄일 의식 안에서 묘사된 그림자들이 지적한 것은, 마지막 대속죄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한 것이고,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인류에게 시험기간이 할당된 것이다. 대체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 것은, (레위기 16:15) 속죄염소에게 죄들의 짐을 지우고 멸망당하도록 광야에 보내기 전에 (레위기 16:22), 마지막으로 회중을 정결케 한 것이다. 그 후에, 만일 그들이 어떤 죄든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 해 정결 의식이 있을 때까지 지니고 있어야 했다.

지금,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음 해에 오는 의식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구원을 위한 풍부한 기회들을 적대하고 계속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자들 위에, "아주 날카로운 최후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계시록 22:11) 일곱째 인이 열릴 때, 은혜 기간이 끝났고 인침도 끝난 것이다. 일곱째 교회 시대가 "라오디케아" 혹은 "사람들의 권리들"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것을 또한, "심판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법"대로였다면,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것이므로, 여섯째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것이다. 일곱째 인이 열려지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자들처럼, 사악한 자들이 모두 쓸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인침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4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7:1) 천사들이 일곱째 인이 열리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연시키고 있는 목적이 있다. 이는 재앙이 떨어지기 전과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이유로 아직도 우리 위에 "정적"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금, 야의 영이 거두어질 두려운 때이므로, 그 분의 아들을 모르는 자는 회개할 욕망과 느낌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사악한 성벽을 억제할 수도 없게 될 것이므로, 충실한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극도의 흥분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이 지구성에서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한 환난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센스 안에서 가장 적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예언이 선포한 모든 것들과 이 일곱째 시대를 통하여 일어날 것들이, 지금 바로, 다가오는 일곱째 인으로부터 넘쳐흐른다. 짐승과 그의 형상이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켰다: **U.S.** 정부가 아주 지독하고 소름끼치게 하는 고대 로마 다신교와 '같은 목적'으로 정부 자체를, 일찍이 순수하였던 교회 조직과 합류시킨 결과를 낳게한 (사탄) 존재자가 "참으로 선택된 자들"을 기만하고 멸망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실재물들을 (교회조직과 정부기관) 이용하였고 (악용한) 것이다. 내가 기록한 기사 "표와 인침" 주제에서 이 사건들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취급하였다.

이 일곱째 시대 언저리에서, 지금 넷째 천사가 위대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친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계시록 **18:2,3**) 그 즉시, 이 마지막 경고가 뒤 따른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8:4,5**) 이 마지막 기별이 주어지고 난 직후, 재앙이 시작된다!

"일곱째 인을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1,2**)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들에 대하여 아주 적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에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19**) 토빌 경의 성경에서 그들 중에 있는 다른 천사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나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기도에 참석하는 일곱 천사들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라." (**Tob 12:15**) 몇몇의 다른 출처들에서도 몇몇의 다른 이름들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계시록 **15:6-8**)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기별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 힘센 일곱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 즉, 일곱 재앙들을 들고 지상에 가서 풀어 놓는다. 이것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는"- 계시록 **8:3**절과 **4**절에서, 보좌에 올라간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 하늘 성전에 가득차므로, 재앙들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는 (정연하게 대속죄를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때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인치는 일이 완성되어서, 그 중에 어떤 자는 축복받은 동료들과 함께 구원받은 멤버가 되든지, 아니면 그가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 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27**)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야께서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완성한 이 기록에 의하여 충만한 이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 메시아이신 야쉬와의 모든 약속들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대의 발걸음들을 지시할 것이고 - 죽음을 떠나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일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2**) 물론, 주께서는, 일곱째 시대 끝에서도 세속적인 교회들 밖에서 기다리실 것이다. (계시록 **3:20**)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일곱째 인이 열려지는 바로 그 언저리에 있으므로, 이 기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와라,' 그리고 이마에 야의 인을 받고, 강압과 증오의 상징인 짐승의 표를 피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25**)

David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웹사이트를 보세요

csda-korea.org

csda.kr